

지역 소식통

정읍시,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보험 가입비 지원

정읍시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정의 진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최대 15만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반려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2026년 유기동물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양 후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한 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다. 신청자는 보험 가입비와 납입료 명목으로 최대 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혜택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증명서류를 챙겨 정읍시 제2청사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6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풍성'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가운데, 정읍시가 이에 발맞춰 오는 10~24일 시민의 일상을 채울 세가지 6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암아트브리즈에서 '정읍의 봄 사진전'이 열린다. 이 전시는 한국사진협회 정읍지부가 주최한다.

이어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 '시암문화예술협동조합이 준비한 녹두꽃 문화 공예 축제(페스티벌)'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풍류정원(박재석) 소극장에서 한국무용협회 정읍지부가 주최하는 '댄스 플레이리스트 2026'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준비된 모든 행사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선 9기 출범 준비 빈틈없이”

권익현 부안군수, 민선 8기 현안 업무 재점검·공약 이행 로드맵 마련 지시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권익현 군수가 처음으로 주재한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8기 마무리와 민선9기 출범 준비를 위한 군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백 없이 현안업무를 쉼없는 부안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 군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군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안군정 방향에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셨다”며 “동시에 기본소득과 기본일자리 등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향한 미래 준비를 더욱 구체화해 달라는 뜻도 함께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군정은 다시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민선8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전 부서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현안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권 군수는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부안군의 핵심 현안이 국가계획과 도정계획, 국비 확보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소 산업, 햇빛 소득마을, 부안형 시설 등 주요 현

안 과제를 언급하며 “새롭게 열리는 도정과 국정 흐름에 우리 군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 대응 논리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민선9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 공약사업 확정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현안사업과 공약 연계사업의 쟁점 사항, 행정절차, 소요예산 등을 정리해 민선9기 출범 직후 실행체계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 군수는 “이제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특례를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안내해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 안내를 강화해 사용자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와 안전관리도 주요 지시사항으로 다뤄졌다.

권 군수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소관 분야별 재난 취약요인과 부서간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경사지, 하천변, 배수로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9기는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군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 공직자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현안업무, 민생지원, 재난안전 대응에 빈틈없이 임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춧가루 가공산업 활성화 박차

고창군, 특화품목 6차 산업화 공모 선정... 총 20억 확보

고춧가루 생산·가공·유통 통합 플랫폼 구축 본격화

고창군 '고춧가루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선정으로 고추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먼저, 군은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정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 참여 주체 간 협력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고창농협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기반으로 원료 수매, 가공, 유통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준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품질관리, 제품 개발, 기술 지원을 맡아 고춧가루 및 김치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은 생산·유통 연계체계 구축과 가공산업 기반 고도화이다.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약재배와 공동출하 시스템을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B2B(기업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유통 전략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판로를 다변화한다.

가공 분야에서는 HACCP 기준을 충족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춧가루 및 김치 소재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현대화에 생산·가공·저장·판매 기능이 통합된 플랫폼을 조성한다. 더불어 절임배추, 김치양념, 소스 등 원·부재료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고창 해풍고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품질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축제, 유통망,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고춧가루의 맵기, 색도, 위생 기준 등 품질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고, 고추장, 소스, 김치양념, HMR 및 밀키트 등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고추·김치 산업과 관광·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추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로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30년까지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이행안 마련

6개 부문 16개 추진 전략·30개 세부 이행 과제 설정

정읍시가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할 30개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기후위

기대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법정 계획이다. 2026~2030년까지 적용할 지역 맞춤형 이행안을 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6개 부문 16개 추진 전략과 30개 세부 이행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과제로는 △공공 하수 처리

를 열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법정 계획이다. 2026~2030년까지 적용할 지역 맞춤형 이행안을 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6개 부문 16개 추진 전략과 30개 세부 이행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과제로는 △공공 하수 처리

기반 시설(인프라) 확대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 체계 마련 △재해 위험 지역 사전 정비 확대 △농업용수 공급 체계 안정화 △기후 대응 산림 경영 체계 구축 등을 집중 추진한다.

시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민 설문조사와 지역 기후영향 분석을 거쳤으며 상위 계획과 연계성 등을 검토했다. 앞으로는 해마다 이행 평가를 진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꾸준히 고쳐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10~14일 부안상설시장서... 수산물 온누리 환급행사

부안군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14일 부안상설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부안상설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군민은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인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

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환급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점포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상설시장 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6년 고창갯벌축제' 성황리 마무리

3만5000명 관광객 방문... 조개 캐기·맨손 장어 잡기 등 '큰 호응'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지난 5~7일(3일간) 열린 '2026 고창갯벌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 3만5천여명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갯벌에서 동족을 직접 캐보는 조개 캐기 체험부터 풍천장어 무료 시식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역동적인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맨손 풍천장어 잡기'는 초여름 더위를 잊게 만든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 해적단 보물찾기를 비롯해 △조개캐기 체험 △풍천장어 무료 시식 △맨손 풍천장어 잡기 △해설이 있는 갯벌 건강걷기 △갯벌 K-POP 댄스 공연△갯벌 힐링요가 △갯벌 생존 OX 퀴즈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만들 부녀회가 운영한 먹거리 코너에서는 새우튀김, 동족갈국수, 동족전 등 수산물 특화 먹거리가 큰 인기를 끌었다. 풍천장어와 지주식 김을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현장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되어 긴 줄이 이어졌다.

아울러 축제위원회는 관람석부터 무대까지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체험부스 전면에 그늘막을 갖추는 등 우천 및 무더위에 대비한 방문객 편의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